



꿈 속의 조각들은 삶으로부터 유래한다

《최모민: 꿈 같은 삶》 | 9.10~10.10 | 산수문화

글 박시내 미술이론
이미지 제공 산수문화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물들의 주변으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손이나 분절된 신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것들은 주변의 배경과 합쳐지거나 계속해서 분리된다. 불이 켜진 초와 단팥빵 봉지, 연필을 쥔 손과, 아보카도를 들고 있는 손, 누군가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지금은 가고 남겨진 잔상 같은 것들은 그곳에 원래 있던 것인지 외부의 것이 풍경을 파열해 침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서사가 애매모호한 것과 대조적으로, 회화의 배경은 아주 맑고 선명하다. 화창한 낮의 진초록으로 우거진 수풀 더미나, 뜨거운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雪)이나, 초저녁이나 새벽 어스름 어드메를 그리는 그림들은 그토록 쾌청하고 맑을 수가 없다. 전시장 한 편에 걸려 있는 목탄으로 그려진 스케치는 많은 것들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서도 무엇을 그렸는지 명확하게 포착되지만, 캔버스 화면으로 옮겨진 서사는 완전히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다. 너무도 평범하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그림의 공간들은 마치 내가 아는 어느 곳 같으나, 공간에 침입한 파편들은 저 공간이 내가 모르는 공간임을 퍼뜩 자각시킨다. 나는 저곳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풍경은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여, 계속해서 불분명해지고 있다.

명절 전날이었다. 새벽에 전화를 받았고 작은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유를 물을 새도 없었고, 애초에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굳이 찾자면야 심장이 약한 가족력을 그가 너무 안일하게 여겼다는 것뿐이었다. 온 가족이 3일 내내 오염하는 식장에는 웬 별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다. 별은 영정 밑으로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국화 주변을 계속해서 알짱거렸다. 할머니는 자꾸 그가 별이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이모는 이모부와 시립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수목장을 하던 것을 자주 구경했고, 자기도 사람이 돌아갈 자리로는 납골당보다 나무가 좋은 거 같다고 했단다. 절대 이런 꼴을 예상하고 했던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날, 날씨는 너무도 맑았고 모든 것이 선명했으며 모두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은 고인에 대한 슬픔은 미뤄둔 채 이 시련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에 대한 각자의 비극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별이 누군가의 이마를 탁 쳤고 그 사람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는 '올다구나' 하고 이모가 돌아왔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식장의 그 별일 리가 없지 않은가. 다시 커져가는 오염과 울부짖음에 진저리를 치며, 나는 저 별이 땅에 앉으면 발로 밟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반복해서 나오는 육계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정신을 놓은 중얼거림, 그리고 그 놈의 별. 점점 단순해져가는 만족스러운 나의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이 커다란 파열음을 내

《꿈 같은 삶》 전시 전경, 사진: 홍철기(스튜디오 수직수평)

최모민 작가가 그리는 인물들은 주로 밀려오는 사건의 직전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있다. 그 중의 몇몇은 캔버스 밖으로 공허한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입을 꼭 다물었다. 그들은 풍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서사와는 관계없이 캔버스 표면 위나 아래에 있



왼쪽부터
최모민, <제철의 남자2>, 캔버스에 유채, 150x150cm, 2018
최모민, <제철의 남자>, 캔버스에 유채, 150x150cm, 2018

며 표면을 북 찢어내고 침투해 들어온다. 예상치 못한 것들과의 갑작스런 조우는 내가 서있는 공간과 그 위에 서있는 나 자신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든다.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잠시 간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지해 있다. 그러한 내 뒤로 일상의 배경은 슬로우 모션으로 줄줄 흘러가고 상황은 같은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된다. 그리고 나서야 '아, 나는 한 번도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지' 하고 다시 자각한다.

그의 그림은 그 생경한 분위기 자체를 그린다. 나의 일부였던 것이 갑자기 나에게서 분리되어 떠돌다가 다시 나에게로 성큼 다가오는 으스스함과 심란함의 감각은 최모민의 회화 위에서 하나의 사건이 된다. 전시의 타이틀은 '꿈'이라는 단어로 그 애매모호한 사건을 집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꿈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몽환적인 분위기나 비현실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그림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이질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회화 위에 표현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사실 곱씹어 보면 어떠한 것이든, 사건은 대단한 계기로부터 촉발되지 않는다. 지각 변동은 어찌 됐든 현실의 귀퉁이에서 드러난 작은 실금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금은 나를 겁 먹게 하기보다는 그저 아연하게 만든다.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당

황스러움, 갑작스레 사무치는 우울감, 현실과 유리되는 감각 같은 것들은, 그 사건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마음을 먹게 하기 보다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시간 위에서 나를 잠시 멈춰 서 있게 할 뿐이다. 그러한 계기 앞에 인간은 갑작스러운 혼란과 함께, 내 존재는 본디부터 세계에 끊임없이 대항하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퍼뜩 알아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동시에 나를 해방시킨다. 꿈의 오브제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나의 몸뚱이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즉 현실의 편린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전시의 제목은 '꿈'이 아니라 '꿈같은 삶'이다. 꿈의 것들이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삶의 징후이며 삶 자체라는 것을 최모민은 담담히 그린다.

그 뒤로 같은 꿈을 꾸고 꾸고 또 꾸다. 잠이 들지 않아도 눈앞에서 그 상황이 자꾸 반복재생되고 귓가에는 벌이 웅웅댄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꿈의 풍경 속에서 분리되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다. 꿈에서 벌을 볼 때에서야 '아 이건 꿈이구나' 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벌을 볼 때마다 '오늘 또 꿈을 꾸겠구나' 할 것이다. ▣



최모민, <대화>, 캔버스에 유채, 193x150cm, 2019